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네 번째

Jeff Pippenger

2025-12-07

## 숫자 4

이사야 28장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과 "교만의 면류관"으로 묘사된다. "면류관"은 지도력을, "교만"은 사탄적 성품을 나타낸다.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되는 남은 자들("residue")과 대조된다. 이는 늦은비 기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것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의 "은혜의 왕국"은 일요일 법령 때의 "영광의 왕국"을 예표한다. 늦은비는 9/11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의 인침과 산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만물이 그들 앞에 닥친 임박한 위기에 매우 주목하며, 생각을 한껏 곧추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죄는 미리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한다. 모든 죄는 성소에서 자복되어야 하며, 그러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 일은 지금 해야 한다.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늦은 비는 순결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그때에는 모두가 예전처럼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천사가 놓아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힘당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온 하늘이 그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천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다."

Spalding and Magan, 3.

요한계시록의 네 바람은, 이사야에게는 동풍의 날 동안 억제되었던 거친 바람으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천사가 제어하고 있는 다툼의 네 바람으로 제시된다. 네 바람은 화이트 자매에 의해 '풀려나려 몸부림치는 성난 말'이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네 바람은 점진적으로 풀려나며, 9/11에서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 때 크게 증폭되고, 인간의 시련 기간이 끝날 때 완전히 풀려난다.

## 해방과 절제

일곱째 나팔, 곧 셋째 화이며 하나님의 비밀의 마침을 선포하는 그 나팔은 이슬람이 풀려났던 9/11에 예언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뒤 9/11 이후 조지 W. 부시에 의해 예언적으로 억제되었다. 이슬람의 어머니이자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은 억제와 해방의 상징이다. 그녀는 사라에 의해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풀려났다가, 질투 때문에 사라에 의해 억제되어 도망치게 되었고, 천사가 하갈이 도망치는 것을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삭이 태어난 뒤에도 하갈과 사라의 다툼은 계속되어,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내쫓음으로써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억제를 가했다.

이슬람의 네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9장 15절의 391년 15일의 예언이 시작될 때 풀려났고, 그 후 1840년 8월 11일에 결박되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그러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시와 날과 달과 해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났다. 요한계시록 9:13-15.

셋째 화의 이슬람이 9·11에 공격을 감행하도록 풀려난 뒤, 조지 W. 부시는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슬람을 억제했다. 이슬람의 상징인 이스마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도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장차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이슬람은 종말에 '모든 사람의 손'이 대적하게 될 세력이자 이슬람도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며, 이는 오늘날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 예언의 상징으로서 이슬람의 특별한 역할은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주제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이야기에서 확인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방을 격노하게 함'으로 표현된다.

"여기 언급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갈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은 분노하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막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문집, 85.

늦은 비가 내리는 "날들"에,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나라들을 산산이 부수고 멸하며,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 2:44.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들"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자들이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술 취한 자들과 대조된다. "판들" 위에 쓰고 분명히 하라고 주어진 하박국의 "묵시"는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들에 대한 역사적 증언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하박국의 증언 속에서 요엘이 제시한 "교만"과 "영광"의 두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부류와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부류로 나타난다. 2장 4절은 이 두 부류를 다루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고전적 비유와 병행한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바리새인의 "영혼"은 "곧지 않다", 이는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다음 절에서 하박국은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부류의 술 취한 자로 지목하며, 이로써 이사야와 하박국의 술 취한 자들을 '교만'과 연결한다.

또한 그는 포도주 때문에 범죄하여 교만한 자요, 집에 머물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과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 모으며,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쌓아 모으는도다. 하박국 2:5.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박국의 이 구절들이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엘렌 화잇과 초기 재림운동 개척자들의 공통된 주제였다는 점이다.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4절이 나타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첫째 실망의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건은 지체의 때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도래를 함께 표시했다. 밀러주의자들은 그 시험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개신교였던 이전의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딸들이 되었음을 이해했다. 그 개신교인들은 사데 교회로 대표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품성과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언약 백성을 대표했지만, 죽어 있었다.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 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요한계시록 3:1.

1844년의 시험 과정은 4월 19일에 시작되어 이후 10월 22일에 끝났는데, 그 시험에서 실패한 자들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5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기만 해도, 인간의 교만의 특징이 교황적 오만과 자기 높임의 예로 거기에 드러나 있다. 그것은 20절에서 끝나며,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하고 선포된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20.

하박국 2장 2절은 1844년 4월 19일의 첫 번째 실망을 가리키며, 그 장은 20절로 끝나는데, 그 20절은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 1844년 10월 22일을 분명히 가리킨다.

### 1844년 10월 22일, 네 번의 도래 (한 줄 위에 한 줄)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의 오심(다니엘 8:14에 제시됨), 다니엘 7:13에 나타난 바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심,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바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심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신랑이 혼인 잔치에 이르는 것으로도 표상되어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6.

3절과 4절은 2절부터 20절까지의 시험 과정, 곧 1844년 4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시험 과정에서 형성되는 두 부류를 식별한다. 4절부터 19절은 교황권을 다루고 있으며, 다만 14절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9/11에 강림한 뒤에 이어지는 역사를 다룬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 2:14.

밀러주의 역사에서 둘째 천사의 시험 과정 가운데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형성되었고, 이후 1844년 10월 22일의 위기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그 본문에서 악인의 품성은 교황권의 품성이며, 그 시험 기간 동안 충실한 밀러주의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하여, 개신교회가 밀러주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로마의 딸들이 되어 버렸다고 선포하게 되었다. 4월 19일에 시작되어 10월 22일에 끝난 그 논쟁은, 벨사살처럼 바벨론의 포도주를 교만하게 마시는 자의 품성이든,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품성이든, 그 품성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 논쟁이야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영원한 현실들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곳이다. 취한 자와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대조라는 배경은, 세상이 그 쟁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깨우침을 받는가라는 논의의 맥락 속에 놓여 있으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 깨우침은 9/11에 시작되었다.

하박국 2장이 묘사하는 역사가 끝날 때 주께서는 1844년 10월 22일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셨다. 이는 그가 다니엘 8장 14절에서 팔모니로서 제시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 팔모니

성경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 곧 1844년에는 10월 22일에 해당하는 그 날에 하박국 2:20이 성취되었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경륜적 변화가 있었음을 가리키는 '장과 절' 속에서 상징적 숫자 '220'을 볼 수 있다. 십사만 사천의 예언적 특징은 그들이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말씀에서 숫자 "220"은 상징적으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며, 그 날짜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사역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사역이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곧 상징적으로 22에 10을 곱한 "220"(22 X 10 = 220),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 "220"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날짜에, 그리스도께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셨을 때 하박국 "2:20"이 성취되었다.

Palmoni, the Wonderful Number는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인 '질문과 대답'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림주의자들은 그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었던 성경 말씀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선언이었다. [다니엘 8:14.]"  
『각 시대의 대쟁투』, 409.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은 13절의 질문과 그 뒤를 잇는 14절의 대답으로 구성된다. 히브리어 '팔모니'는 13절에서 '어떤 거룩한 자'로 번역되며,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기묘한 계산자' 또는 '비밀을 헤아리시는 이'를 뜻한다.

엘렌 화잇은 14절이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이자 기초라고 밝히면서, 이 두 절의 질문과 대답에 신적인 강조점을 둔다. 이는 '기묘한 수를 헤아리시는 이'이신 그리스도를 최우선적 기준점으로 삼아야 함을 요구한다. 화잇 여사는 어떤 본문이든 그 중심 진리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13절과 14절에서는 '어떤 거룩한 이'로 직접 나타난 그리스도, 곧 팔모니가 등장한다.

1863년에 재림주의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팔모니에 눈을 감았다.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의 예언적 구조는 모세의 '일곱 때'와 다니엘의 '이천삼백 일'의 관계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일곱 때', 곧 2,520년과 다니엘의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 곧 2,300년의 예언적 관계는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에 의해 확립되며, '기묘한 계산자'는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을 이루는 질문과 대답의 한가운데에 있다. 요세푸스의 저작을 읽어본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특별한 것을 지적하는 그의 논증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나는 히브리어였고, 다른 하나는 측정 가능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수학을 필요로 한다.

13절은 "얼마 동안인가?"라고 묻는다. 그 절은 "언제"를 묻지 않고 "얼마 동안인가?"를 묻는다. 질문이 기간(얼마 동안인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시점(언제인가?)에 관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4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간을 특정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13절의 질문이라는 맥락 안에 놓여야 한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 즉 14절의 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질문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언제"인가, 아니면 "그때"인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14절이 어떤 시점을 지목한다고 모호하게 가르치며, 그 시점을 1844년 10월 22일로 특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방금 'The Great Controversy'에서 인용한 대목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1844년 10월 22일은 조사심판의 기간이 시작된 날이었고, 그 사역과 관련된 진리들은 영원한 복음을 대표하며 단지 그것이 시작된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히브리어 문법은 명확하며, 그와 동일한 의미로 킹 제임스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 문법이 그 질문을 분명히 기간의 맥락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은 성경 예언의 상징이다. 여러 증거를 통해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이 상징으로서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는 팔모니와 요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얼마 동안'이라는 상징을 살펴보겠다.

## 얼마나 오래?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서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3.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을 3절의 천사들과 연결한다.

그들[천사들]이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미래를 볼 때, 승리의 찬양이 선율 고운 찬가로 서로 주고받으며 울려 퍼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

이사야는 9/11에 서서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9/11의 메시지를 "얼마 동안" 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도시들이 무너질 때까지, 곧 도시들의 파괴가 시작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 파괴는 국가적 배도 뒤에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때인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그때 내가 물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다.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그 땅 한가운데가 크게 버려질 때까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십분의 일이 남을 것이며, 그것도 돌아왔다가 다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앞을 떨어뜨려도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테일나무와 참나무처럼, 그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 6:11-13.

9/11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히 비추어졌을 때 이사야는 늦은비 기별을 전하라고 기름부음을 받고, 그는 '얼마나 오래' 마음이 둔한 사람들에게 9/11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 대답은 일요일 법령 때까지이며, 그때 '땅 한가운데 큰 황폐'가 있을 것이다. 그 '큰 황폐'는 이사야가 22장에서 셉나로 표상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라, 주께서 큰 사로잡힘으로 너를 끌어가고 반드시 너를 덮으시리라. 그가 반드시 너를 공처럼 격렬히 돌려 넓은 땅으로 내던지시리니,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며,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가 너를 네 지위에서 몰아내리니, 그가 네 직분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사야 22:17-19.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일요일 법령 때 진리를 버리고,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묘사된 대로 그때 '엎드려진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가 패망할 것이로되,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들은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니라. 다니엘 11:41.

이사야가 '얼마 동안'이냐고 물을 때, 그는 그 기별을 재림운동에 일요일 법령에 이를 때까지, 곧 다니엘 11장 41절의 '많은 자들'이 안식일과 하나님을 버릴 때 '엎드려지게' 될 그때까지 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고 끝나는 그 책에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쫓김을 당할 것이며, 또한 이사야 22장에서 셉나가 '공처럼 큰 나라로' '폭력적으로' 내던져져 '먼 곳으로' ' 옮겨지는' 장면에서도 그것이 드러난다.

그 시기에 남은 자들은 '십분의 일'(즉, 십일조)로 표현되어 '돌아온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잎사귀를 떨구어도 '실체'가 남아 있는 나무들에 비유된다. '잎사귀'는 예언적 상징에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재림주의가 일요법령에 이르고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주간의 첫째 날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신앙 고백'의 잎사귀를 떨쳐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행동으로 보이신 비유였다.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겉치레의 잎사귀를 뽐내던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그 확실성을 분명히 보여 주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그분은 그 나무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 신적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나섰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의롭다고 자처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허식의 가치를 높이 펼쳐 보이며, 겉으로는 무성하고 보기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뿐"이었다. 웅장한 성전과 거룩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과 장엄한 의식을 갖춘 유대 종교는 겉으로는 참으로 보기 좋았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부족했다.

무화과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이 없는 나무들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실망도 주지 않았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을 상징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경건함이 결핍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공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선함을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길에 눈멀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빛과 소망을 가져다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들을 남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들이 자랑하던 특권은 오히려 그들의 죄책만을 더해 주었을 뿐이었다. 시대의 소망. 582, 583.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재림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공언하던 것은, 그들이 죽음의 언약의 표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언약의 인을 거절함으로써 사라진다. 그들은 그때 자신들의 공언의 잎사귀를 벗어던지고, 드러나는 것은 이사야로 대표되는 남은 무리인데, 그 무리는 9/11에 '옛 길'로 돌아갔고, (이사야가) 자신의 부패한 경험을 깨달았을 때 티끌 가운데로 낮아졌으며, 이후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다. 화이트 자매는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이 정결을 상징한다고 알려 주지만, 그 정결은 단지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타오르는 숯불은 정화의 상징이다. 그것이 입술에 닿으면, 그 입술에서는 어떤 부정할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타오르는 숯불은 또한 주의 종들의 수고가 지닌 능력을 상징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10월 16일.

마지막 날들에 제단에서 나온 "숯"이 땅으로 던져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첫 다섯 절에서 일곱째이자 마지막 인이 열릴 때 땅으로 던져지는 그 숯들이다. 이사야는 숯이 그의 입술에 닿아 정결케 되었고, 그러므로 14만 4천도 그들의 입술에 숯이 닿음으로써 정결케 된다. 그러나 그 "숯"은 메시지다. 그들이 천사의 손에서 책을 취하여 먹을 때 그것이 그들의 입술에 닿는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돌아와' 남은 자(잔여)가 되는 자들은 참나무와 퉁나무로 표현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도덕적 성질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신적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나무들 안에는 '실체'로 표현된 '도덕적 성질'이 있다. '겉치레의 잎사귀'에 불과했던 자들이 떨어져 나가도, 그 '실체'는 나무들과 함께 남아 있다. '거룩한 씨'는 '실체'이며, 그리스도는 예언의 '거룩한 씨'이다. 6장에서 남은 자로 표현된 그 나무들과 이사야 자신은 사람들, 곧 인류를 대표하고, 거룩한 씨는 신성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은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 재림주의의 정화를 지목하며, 그 예언적 역사에 대해 이사야가 제공하는 세부 사항들은 모두 그의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사야에게 '얼마나 오래'의 답은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였다.

## 얼마나 오랫동안? 1840-1844년

1840년 8월 11일은 9/11을 예표했으며,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이세벨의 선지자들 사이에 갈멜 산의 전투가 벌어졌다.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 엘리야에 의해 처형되었지만, 그 대결의 바로 시작에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다." 열왕기상 18:21, 22.

엘리야는 1840년 8월 11일에 이르러 그 세대에게 밀러파의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묻는다. 그것은 이사야 6장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인도되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일으켜져 그 기별을 선포하였다. 예수의 선구자였던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들의 증언은 교회들을 일깨우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참된 품성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울려 퍼질 때,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의 타락을 깨닫고, 쓰라린 회개의 눈물과 깊은 심령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외침을 함께 전하는 데 힘썼다. 초기문집, 233.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시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인들은 로마의 딸들이 되었고, 개신교의 주도권을 밀러파 재림운동에게 넘겨주었다. 이사야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은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이 9/11에서 시작해 일요일 법령으로 끝나는 역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1840년 8월 11일은 9/11에, 1844년 10월 22일은 일요일 법령에 각각 대응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삼켜 버렸을 때, 그 제물과 함께 열두 돌이 모두 밝게 빛났고, 이로써

빛나는 돌들로 표상된 기치로 십사만 사천이 드러났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거짓 선지자인 미국도 일요일 법령 때 여섯째 왕국으로서 죽임을 당한다.

이사야 6장은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질 시험과 정화, 정결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라오디게아적 태도를 다루면서, 동시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나아가 참 기별과 거짓 기별을 가르는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사데 시대의 개신교인들에게 예언적 시험이 임했으며, 갈멜산의 불이 두 부류로 나뉘게 했던 것처럼 1844년에 두 부류가 드러났다. 그 시험 과정에서 한 부류는 머지않아 “이전의” 언약 백성이 될 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언약을 맺으실 밀러파 재림운동이었다. 이 시험과 분리의 기간은, 사데 시대의 개신교가 배도한 개신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밀러파 재림운동이 참 선지자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포도원 이야기의 재현이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이전의 언약 백성 또한 드러났고 이어 밀러파에 의해 로마의 딸로 규정되었다. 갈멜산의 이야기와 그 역사가 밀러파 시대에 성취된 사실은,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이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는 이사야 6장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예언자가 간구한다. ‘오늘 이 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숨 막히게 엄숙한 침묵이 모든 이에게 내려앉았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공포에 떠다. 자신들의 죄를 의식한 그들은 곧 닥칠 징벌을 기다린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눈부신 화염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뚝 세워진 제단 위에 임하여 제물을 불사르고, 도랑의 물을 활아 마시고, 제단의 돌들마저도 태워 버린다. 불길의 찬란함이 산을 환히 비추고 무리의 눈을 눈부시게 한다. 아래쪽 골짜기들에서는, 위에 있는 이들의 움직임을 초조한 긴장 속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내리는 것을 두렵이 보고, 모두 그 광경에 놀란다. 그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군대와 갈라놓았던 불기둥과도 같다.

산 위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감히 계속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들이 소멸될까 두려워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자신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놀랄 만큼 또렷하게 그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아래 평야에 메아리친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깨어나 미혹에서 벗어나 회개한다. 마침내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욕되게 했는지 깨닫는다. 참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예배와 대조되어 바알 숭배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난다. 백성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게 될 때까지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인정한다. 이제 그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든 우상 위에 계신 분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지자와 왕들, 153.

## 얼마나 오래? 모세

예언의 말씀에서 상징적 질문인 "언제까지"가 처음 제기된 것은 모세 시대 애굽인들에게 내린 여덟 번째 재앙에서이다. 여덟 번째 재앙은 "동풍"(이슬람을 상징)이 가져오는 "메뚜기"(이슬람을 상징)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네 온 땅에 들게 하겠다. 그들이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우박을 피하고 네게 남아 있는 것을 먹어 치우며,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먹어 버릴 것이다. 그들이 네 집과 네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을 가득 채울 것이니, 이는 네 조상도 그 조상들의 조상도, 그들이 이 땅에 있던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울무가 되겠나이까? 남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로 불러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누가 갈 것이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양 떼와 소 떼와 함께 가리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함이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놓아 보내는 것처럼 주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명심하라, 너희 앞에는 악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제 장정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가 그것을 원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바로의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들이 올라오게 하여 그들이 애굽 땅의 모든 채소, 곧 우박이 남겨 둔 것까지 다 먹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날 종일과 그 밤새도록 그 땅 위에 동풍을 불게 하셨고,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왔다. 메뚜기들이 애굽 온 땅으로 올라와 애굽의 모든 지경에 내려앉았으니 지극히 심하였더라.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메뚜기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온 땅의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두워졌고,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 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들의 채소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노라. 이제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거두어 주시게 하라.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매우 강한 서풍을 일으키시어 메뚜기들을 몰아내어 홍해에 던지시니, 이집트 온 경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남지 않았다. 출애굽기 10:3-19.

먼저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거절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다시 바로에게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무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여덟째 재앙 때에 나왔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9/11과 부합한다. 열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것으로, 이는 십자가와 부합하고, 이어지는 홍해 앞의 실망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겪은 실망과 일치하며, 이는 다시 1844년 밀러주의자들의 대실망과도 일치한다. 그 세 증인은 모두 일요일 법과 일치한다. 열째 재앙은 일요일 법이며, 그보다 두 재앙 앞선 여덟째 재앙은 "동풍"을 타고 "메뚜기들"을 불러왔다. "메뚜기들"은 온 땅을 가득 채웠는데, 마치 오늘날 이슬람이 강제 이주를 통해 그 어둠을 퍼뜨리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과 같다. "사막 메뚜기"의 라틴어 이름은 "locusta migratoria"로, 자연계에서 이동으로 상징되는 이주를 통해 이슬람이 퍼지는 것을 나타낸다.

아홉 번째 재앙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내밀매,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들의 거처에 빛이 있었다. 출애굽기 10:21-23.

갈멜산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얼마 동안'의 상징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구별이 드러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밀러파 역사에서는 타락한 사대적 개신교와 밀러파 재림주의 사이에 그 구별이 이루어졌다. 모세의 경우 그 구별은 어둠이나 빛이냐였다. 히브리인의 집들에는 빛이 있었다. 이사야는 더 나아가, 모세의 맥락에서 빛이 없는 자들, 엘리야에 의해 멸망당하는 자들, 그리고 밀러파 시기에 개신교의 망토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곧 '듣기는' '하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되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알려 준다. 그런 다음 이 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내려진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두렵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일할 의지는 있었지만,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는 임무에 압도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세 가지는 9/11에서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세 단계에 대한 증거가 된다. 1840년 8월 11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받았고, 1844년 4월 19일에는 둘째 천사가 임했으며 8월 12-17일 엑서터 야영집회에서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에는 셋째 천사가 임했다. 셋째 천사는 일요일법과 일치하므로,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 단계의 과정을 드러낸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고, 우리는 지금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기별 모두는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되풀이해 전하는 일은 지금도 예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는 글과 말로 그 선포를 울려 퍼뜨리며, 그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끄는 예언들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는 있을 수

없다. 이 기별들을 우리는 간행물과 강연을 통해 세상에 전하여, 예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4, 105쪽.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은 영감으로 십자가와 그와 관련된 그 이후의 실망과 연결되어 왔다. 그러므로 열 번째 재앙은 세 번째 메시지이며, 예언적 필연성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가 그에 앞서야 한다. 9/11에 주께서 바로에게 “언제까지”라고 물으셨고, 곧이어 바로의 신하들도 “언제까지”라고 물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바로에게 전한 뒤, 신하들이 모세의 질문을 바로에게 되풀이하기 직전에, 모세는 이를 전환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가 몸을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가니라.” 출애굽기 10:6.

9/11은 예언적 전환점이었는데, 이는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재앙을 내린 모세의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국가와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때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칠 때, 그 시대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Bible Echo, 1895년 8월 26일.

다음 재앙은 당신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었느냐에 따라 어둠이나 빛을 가져왔다. 9/11은 “열국과 교회의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 옛 길을 걸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그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엘리야 이후 어둠과 빛이 갈라졌고, 모세는 “언제까지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칠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난파가 뒤따른다. 바이블 에코, 1895년 8월 26일.

다음 글에서 ‘how long’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1842년 5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가 개최될 때, 헤이버릴의 형제들인 찰스 피치와 아폴로스 헤일이 예언의 수들을 덧붙여 그 성취를 보여 주는, 천에 그려 넣은 다니엘과 요한의 도해된 예언들을 제시하였다. 피치 형제는 총회 앞에서 자신의 도표를 설명하면서, 이 예언들을 살펴보는 동안,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주제를 단순하게 하고 자신이 청중에게 제시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길에 더 많은 빛이 있었다. 이 형제들은 주께서 2,468년 전에 하박국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 주시며 이르신 바, ‘그 묵시를 기록하고 그것을 판에 분명히 쓰라.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이는 그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라.’ 하박국 2:2, 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 주제에 대해 얼마간 논의한 뒤, 이와 같은 것을 석판 인쇄로 300매 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곧 실행되었다. 그것들은 ‘43 도표’라고 불렸다. 그 회의는 매우 중요했다.” 조지프 베이츠의 자서전, 263쪽.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 수치들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였으며, 그분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어떤 수치들 가운데 있는 한 실수를 가리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Early Writings, 74.

“‘원래의 믿음’ 위에 서 있던 재림 강사들과 신문들의 일치된 증언은, 도표의 출판이 하박국 2:2, 3의 성취였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 도표가 예언의 한 주제였다면(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원래의 믿음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2300일의 기산점은 B.C. 457년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따른다. 1843년이 처음으로 공표된 시기가 되어야 했던 것은, ‘그 이상’이 ‘더딜’ 것, 곧 더딤의 때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니, 그때에 처녀 무리는, 그들이 한밤중의 부르짖음으로 각성되기 직전에, 시간에 관한 그 중대한 주제에 대하여 졸며 잠들게 되어 있었다.”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Volume 1, Number 2, James White.